

先志願 後試驗 제도를 생각해 본다

金 仁 會

(延世大 教育科學大 學長)

지난 40여 년 동안 있었던 우리나라 교육에서의 흐름과 변화를 몇 가지 각도로 나누어 정리한다면 아마도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교육 내용과 입시 제도에서의 변천을 들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 중에서도 입시 제도에서의 변화, 특히 대학 입시 제도의 변화는 고등학교의 교육 내용에까지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영향을 미쳐 왔다고 할 수 있다. 전후의 순서를 따진다면 고등학교까지의 교육 내용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대학 입시 제도와 내용이 영향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하겠다. 그러나 그 동안의 실정으로는 아무리 교육 과정을 개편하여 중·고등학교 교육이 전인교육적인 방향으로 전개되도록 유도하고 권장해도 실제에 있어서 중·고교 교육 내용에서의 과목별 비중의 결정은 대학 입시의 경향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달려 있었다는 것을 교육계에서는 누구도 부인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 입시 제도의 변화는 바로 그 동안의 우리나라 중등교육의 성격, 내용, 방향 등을 결정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러면 지난 40여 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대학 입시 제도는 어떻게 바뀌었던가.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지만 몇 가지 특징적인 흐름만을 정리해 보자. 첫째로 입시 과목의 수가 계속해서 증가해 왔다. 둘째로 시험 방법이 주관식으로부터 점차 객관식으로 바뀌어 왔다. 셋째로 시험의 주도권이 대학으로부터 차츰 국가쪽으로 옮겨졌다. 넷째로 선지원 후시험이던 절차가 선시험 후지원으로 바뀌었다.

이러한 변화의 특징들은 특히 '8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거의 융통성을 갖지 못한 채로 지난 7년간의 대입 제도 속에 집약되어 있었다. 그 결과로 나타나게 된 고교 교육에서의 변화들 중 교육적 의미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결함이라고 생각되는 것 한 가지만 찾는다면 교사가 교육 전문가의 역할을 못하고 노름관의 훈수꾼 같은 역할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된 이른바 진학 지도의 현상일 것이다. 솔직히 말해 그 간의 대학 입시 때마다 원서 접수 창구

에서 벌어지던 눈치 작전 풍토는 중·고교 교육의 의미가 과연 무엇이었는지를 새롭게 묻지 않을 수 없도록 해왔다. 중·고교생들의 폭력 문제, 청소년 범죄율 증가, 대학생들의 반사회적 탈선 등등 급증해 온 부정적 현상들을 교육이라고 하는 시각으로부터 진단하려 할 때에 도달하게 되는 하나의 중요한 구조적 동기가 바로 대학 입시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아니 될 것 같다. 우리나라가 지니고 있는 여러 가지 긍정적 가능성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자원이 바로 교육임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또한 그렇기 때문에 교육은 가장 위험성이 높은 분야라는 사실에 대해서도 무관심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많은 경우 국민들의 높은 교육열과 교육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 간여가 합쳐져서 교육 현실을 더욱 풍요하게 만들어 나간다는 식으로 단순하게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교육 현상도 다른 일들과 흐름의 원리에 있어서는 마찬가지다. 가능성이나 긍정적 요소에만 집착해서 덮어 놓고 한 쪽 방향으로만 밀어 붙이면 반드시 목적했던 바와는 정반대의 위험성과 부정적 요소를 노출하게도 되고 때로는 파멸에 이를 수도 있는 법이다. 이제까지의 우리나라 교육에서의 변화는 정책적 차원이나 실천적 차원을 막론하고 교육의 어느 한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면 곧바로 제도를 새롭게 고치고, 새로운 제도가 지니는 문제점이나 약점은 미처 그 제도의 장점이 실현되어 보기도 전에 교육열 높은 국민들에 의해서 적발되곤 해왔다. 그러므로 중요한 문제는 제도가 아니라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의 문화적·사회적 풍토와 조건 속에 감춰져 있는지도 모른다. 즉 토양의 성질과 그 곳에 파종한 씨앗의 성질, 비료나 농약의 성질 등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루지 못해서 농사가 잘 안 되는 일을 놓고 어떤 때는 씨앗을 바꾸고 어떤 때는 비료를 바꾸는가 하면 또 어떤 때는 파종 시기와 방법을 바꾸는 식으로 부분적인 시행착오를 되풀이해 온 것이 바로 우리의 교육 현대사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다.

선지원 후시험으로의 대입 제도 변화 역시 이런 차원에서 바라볼 때에는 부분적인 시행착오의 연속선상에서 설명되어질 일이지 그 자체를 놓고 개선이나 개악이나를 판단하기에는 적합하지 못한 문제라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시험 시기와 원서 접수 시기의 선후 관계를 아무리 이리 바꾸고 저리 바꿔도 결국은 朔三稔四이기 때문이다. 대입 제도 그 자체가 획일적으로 경직되어 있다는 사실, 국가가 단독으로 출제한 입시 문제만을 전국의 모든 학교들이 사용해야 된다는 사실 등에서는 변함이 없기 때문이다.

바라건대 고3 선생님들부터가 학부모들에게 제도가 이렇게 바뀌었으니 차제에 자녀의 능력과 적성을 기준으로 안전 지원을 하는 것이 대학의 등급을 기준으로 눈치 지원하는 것에 비해 본인을 위해서는 물론이고 사회를 위해서도 훨씬 좋은 일이라는 쪽으로 정말 교육자다운 자문에 적극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것이 고교 교육과 이 나라 교육 전체가 되살아날 조짐을 만드는 첫 단계 작업이다. *